

노 재 승 지도교수

석사학위 청구논문

기하학적 형태에 대한 조형성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2007

성신여자대학교 아트·디자인대학원

조형예술학과 조각전공

김 남 운

기하학적 형태에 대한 조형성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노 재 승 지도교수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7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아트·디자인대학원

조형예술학과 조각전공

김 남 운

인 준 서

김남운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아트·디자인대학원

논문개요

기하학적 형태는 건축, 회화, 조각, 디자인 등의 시각 예술영역에 중요한 조형적 요소이다. 기하학적 형태는 수학적 비례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도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평면과 입체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조형에서의 합리적인 법칙은 질서와 조화의 표현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이것은 곧 변화와 통일을 이루어내는 기하학적 형태들에 내재된 수학적 정리(定理)에 기초하고 있음을 말한다.

본인의 작품은 기하학적 이러한 형태들 중에서 원, 사각형, 그리고 원추형을 이용하였다. 원은 우주와 질서를 나타내며, 원기둥과 삼각형의 결합인 원추형은 불변성의 핵심 즉 진리의 상징성과 인간이 지닌 자율적인 중심을 나타내고자 하였으며 사각형은 만물의 대립이 이루어내는 안정적인 균형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작품의 조형요소로서 색채를 사용하였는데 동양의 우주관에 근거를 둔 음양오행을 나타내는 청, 적, 황, 백, 흑색 등의 오방색을 사용하였다.

기하학적 형태를 사용하는 조형적 관점에서 우주와 질서, 그 안의 나에 대한 존재방식으로서의 조형방법과 색채의 상징성과 함께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기하학적 표현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I 장. 서론에서는 기하학의 개념과 질서와 조화를 정리하였으며 작품의 조형성에 대한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제Ⅱ장. 본론에서는 이론적 배경과 형태적 표현으로 제시된 원과 원추, 사각형과 색과 빛에 대한 조형적 의미와 표현에 대해 서술하고 작품 6점의 제작방법과 작품내용을 서술하였다.

제Ⅲ장. 결론은 이상의 연구과정을 통해 본인의 작품을 이론적으로 재정리하고 이를 근거로 작업의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목 차

I. 서 론	1
II. 본 론	3
1. 작품의 이론적 배경	3
1) 기하학적 조형	3
2) 질서와 조화	6
2. 작품의 형태적 표현	8
1) 원과 원추	8
2) 사각형	9
3) 오방색과 빛	10
3. 작품분석	12
III. 결 론	29

참고문헌

ABSTRACT

그림 목 차

【도판1】 [작품1] 조화(Ⅰ)- <i>Harmony</i> (Ⅰ).....	12
【도판2】 [작품2] 조화(Ⅱ)- <i>Harmony</i> (Ⅱ).....	15
【도판3】 [작품3] 조화(Ⅲ)- <i>Harmony</i> (Ⅲ).....	18
【도판4】 [작품4] 명상(Ⅰ)- <i>Meditation</i> (Ⅰ).....	21
【도판5】 [작품5] 명상(Ⅱ)- <i>Meditation</i> (Ⅱ).....	24
【도판6】 [작품6] 명상(Ⅲ)- <i>Meditation</i> (Ⅲ).....	27

I. 서 론

20세기 초 디자인과 예술 속에서 활용되며 기하학적 형태는 공간 분할, 면의 구성을 기초로 한 평면과 입체조형에 구성적 규범을 형상화하였다. 이것은 형태 구성과 기본 시각요소들의 방법을 이용하는 현대조형의 근본 요소로 사용되었다.¹⁾ 이러한 기하학적 형태는 기계와 문명화된 현대의 미적 욕구에 부합 할 뿐 아니라 간결하고 함축적인 형태로 조형 작품의 영역에서 많은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서술하는 본인 작품에서도 우주의 질서 속에서 편입된 본인의 자아에 대한 인식과 욕구를 기하학적 형태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조형을 통해 표현하고자 한다. 그 기하학적 형태 중에서 원과 원추, 그리고 사각형을 가지고 형태의 결합과 대칭, 변형을 통한 방법을 조형요소로 활용하는 동시에 그 형태적 측면에 병행하여 조형적 표현으로서 색채를 활용하였다.

색채를 활용함에 있어서 본인은 기하학의 활용과 마찬가지로 상징성에 중점을 두고자 하였다.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의 색채 론은 우리의 동양적 우주관을 의미하는 오방색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오방색은 곧 세계의 질서와 조화에 근거한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본 연구의 목적은 기하학적 도형과 색이 지닌 조형적 개념과 형태적 의미를 질서와 조화의 관점에서 이론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또한 작품의 형태와 내용 및 제작방법을 분석하여 설명하고, 결론에서 기하

1) 기하학적 형태는 현대 디자인의 개념을 최초로 제시한 바우하우스(bauhaus)나 '면과 분할', '점과 선과 면의 복합 구성을 제안한 몬드리안과 칸딘스키의 기하학적 구성주의가 있다.

학적 조형의 표현과 의미가 질서와 조화라는 합리적이면서도 아름다운과 미적 감각에 대한 통찰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며, 아울러 이러한 균형 속에서의 질서와 조화의 미학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중요한 요소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본 론

1. 작품의 이론적 배경

1) 기하학적 조형

기하학은 물리적인 공간을 모델링 하는 수학적 이론으로 기하학은 영어로 'geometry'라 하는데, geo-는 토지를 metry는 측량을 뜻한다.²⁾ 이는 고대 이집트인들이 나일강의 범람으로 인한 토지 측량에서 유래된 말이며 사물의 형과 크기를 취급하는 과학 혹은 공간의 수리적 성질을 연구하는 수학의 한 분야로 정의 한다.³⁾

고대 이집트의 토지 측량에 사용되었던 기하학은 이후 그리스에 와서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기하학으로 탄생하게 되었는데, 그리스의 기하학에서는 엄격한 측정에 의해 그려진 직선과 원형을 비롯한 여러 기하학적 형태들이 나타난다. 이러한 기하학에는 수의 배열 속에 있는 어떤 질서를 기하학적으로 형상화 했던 피타고라스의 정리나 유클리드의 기하학이 뒷받침 되었다.

이것은 중세와 르네상스시기에 이탈리아 수학자 파치올리(Luca Pacioli)에 의해 신성비례(神聖比例)로 불리어 신성한 종교적 상징이 되기도 했다. 이러한 수와 기하학의 연관 관계는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 중세기의 교회건축, 르네상스시대의 건축과 조각, 회화 등에 이용되었다.

기하학은 문명의 발달에 따르는 하나의 특성으로서도 이해 될 수도 있고 또

2) Jame & Jones, *Geometry, Mathematics*, Dictionary, 1986. p.162

3) 『동아원색세계대백과사전』, 제6권, 1982년, p.274

한 자연의 유기체적 형태를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로 바꾸거나, 조형의 최소 단위인 점과 선, 면으로 재구성하여 만들어진 입체조형 형태들은 수학적 분석과 사고의 논리적 구성을 시각화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⁴⁾

근대에 이러한 비례는 1830년에 최초로 ‘황금분할’(golden section)⁵⁾로 명명되었고, 비례와 기하학적 조형의 관계는 현대에 들어 건축가 르 꼬르뷔제(Le Corbusier)에 의하여 인간 신체를 척도로 하여 수학적 원리와 기하학적 원리에 근거하여 건축을 위한 인간 척도체계인 ‘모듈리’⁶⁾로 창안되어 그의 건축조형에 활용되었다.

기하학이란 것은 과학적인 시각을 동반한 것으로 조형적 사고를 주제에 대응하여 점, 선, 면들의 도식적 조형요소에 의해 공간의 비례와 균형을 유지시켜 주는 것을 말한다. 기하학적 형태는 현대를 이해하는 합리적인 조형요소로 인식되며, 정확한 기하학 형태를 제작하고자 한다면 수학적 질서와 수학적 구조 또는 물리적 구조를 가진 도구의 사용이 필요하다. 이러한 도구의 사용이

4) 루돌프 아르헨하임은 현대 미술에서의 기하학적 형상의 출현은 현실로부터 ‘이탈된 관찰’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그가 말하는 ‘이탈된 관찰’은 어떤 것을 더욱 잘 보기 위하여 한 걸음 물러선 것으로 발생적 디테일을 떨쳐 버리고 본질 요소들이 더 잘 나타나 보일 만큼 충분한 거리를 취하기 위해서 한 걸음 물러선 것이다. 여기서 과학은 기본적인 현상과 작용들을 좀 더 직접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개별적인 외양으로부터 철수하여 ‘순수 본질’의 직접적 파악이 된다. 이러한 순수 본질에 대한 직관은 추상성을 통해 시도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루돌프 아르헨하임, 김춘일, 『미술과 시각』, 홍성신서, 2002년 pp.184-185참조

5) 1:0.618의 비례인 황금분할은 사람의 눈에 가장 조화롭게 보이는 분할 비율로서 고대 그리스인들에 의해 발견되었다. 기원전 300년경에 만들어진 유클리드의 기하학 속에도 이 비율은 포함되어 있으며, 황금분할의 기원을 바빌로니아 문화에서도 찾는 견해도 있다. 피타고라스는 이 비율을 신성과 구원의 증표로 보기도 했고, 이러한 전통이 루카 파치올리에 의해 신성 분할, ‘디비나 포르포치오네’라고 불렀다. 봉상균, 『기초디자인』, 조형사, 1995. p.91

6) 서양 고전 건축에서 원주의 모든 비율과 균형을 정하는데 사용한 용어로 기둥 직경이 기본 치수였다. 현대 건축에서 모듈은 건축이나 조형의 치수를 결정하는데 편리한 단위로 되어 있다. 민철홍 외, 『디자인 사전』, 안그래픽스, 1994. p.156

기하학 형태를 재현 가능하게 하며, 자나 컴퍼스과 같이 간단한 도구로부터 컴퓨터 그래픽 작업에 이르기까지 그 값을 측정 할 수 있어 객관화 할 수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시각적으로 “기하학적인 형태는 유기적인 형태와는 달리 명확성, 합리성, 단순성 등을 갖고 있어서 강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조형작품에 이용되고 있으며, 기술적인 필연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바로 이러한 기술적인 필연성이 합리주의적인 사고와 결합하여 형태적인 질서로 나타난다.”⁷⁾고 할 수 있다.

기하학적 형태는 평면적으로 삼각형과 사각형 그리고 원의 기본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를 입체화 시킨 것이 입체조형이다. 오늘날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우리의 생활환경 속에는 기하학적 형태를 토대로 하여 이루어진 것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사물들은 일정한 질서와 미적 형식 원리를 반영한 직접적인 기하학적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형태들은 점, 선, 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여기서 발전된 입체는 점과 선이 이어진 궤적과 같이 일정한 각도의 방향으로 이동하거나 회전시킴으로서 표현되는데 3차원성, 한정성, 양감, 무게, 굵기 등의 특징을 가진다.

정리하자면, 기하학적 조형은 점, 선, 면들의 조형요소를 통해 공간의 비례나 균형, 질서와 조화와 같은 조형미를 형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7) 이일, 『조형 형태론』, 홍익대학교 출판부, 1971. p.24

2) 질서와 조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하나의 '장'(場)이다. 이곳은 우주이며, 어떤 공간이다. '카오스'인 우주는 질서를 통해 '코스모스'가 되었으며, 우리는 이것을 '세계'라고 부른다. 동양에서의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을 잇는 '천지인(天地人)'사상이나 서양의 '코스모스'로서의 우주이론 속에서 공통적인 것은 세계는 어떤 원리를 지닌 채 자율적으로 그리고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살아있는 세계이다. 이러한 우주적 생성과 소멸의 장(場)속에서 인간 존재는 우주 원리에 순응하는 자연인일 뿐이다.

자연의 질서 속에서 인간은 생성되고 소멸하는 하나의 생명체이다. 근본적으로 자연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는 인간은 자연의 이상적인 섭리 속에 스스로 동화되어야 하며, 생성과 소멸, 변화를 거듭하며,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이러한 질서와 조화의 법칙이 존재하는 것이며, 바로 여기에 자연의 완전한 미(美)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질서와 조화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원과 원추, 사각형태 즉 기하학적 형태와 색체를 작품의 조형요소로 활용하였다.

기하학의 기본 형태는 원과 삼각형 그리고 사각형을 말하며 원시부터 "20세기 조형운동에의 기초가 되었던 기하학적 조형들은 인공적인 것들에 대한 질서와 조화의 관계를 표현하는 기본요소"⁸⁾라고 하였다.

이러한 기하학적 형태들로 이루어진 본인 작품에서 원의 의미는 순환, 우주, 공간을 말하고 있으며, 여러 개의 링이 직선으로 연결된 형태와 원형의 링 속에 링(Ring)이 반복으로 표현된 것은 대우주 속에 있는 소우주들, 질서속의

8) 김춘일, 박남희, 『조형의 원리와 분석』, 서울 미진사 1991. p.67

리듬이나 순환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다른 모양의 형태인 사각형으로 구성된 직육면체의 작품은 질서와 조화의 원리로써 균형 등을 말하는데, 그 속 중심에 매달린 원추는 자신에게 내재된 불확실성의 세계 카오스의 범주를 우리가 체험 확인 할 수 있는 우주의 힘. 즉 만류인력을 이용한 궁극적인 핵심의 절대성에 다가서고자하는 욕망을 상징한다. 우주의 질서 속에서 편입된 작가의 자연에 대한 욕구를 역설적으로 기하학을 활용하여 표현 하였다. 그리고 색을 사용하였는데 기하학적 형태의 조형과 색상의 조화로 아름다움의 다양함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색상을 사용함에 있어 황색, 백색, 흑색, 적색, 청색을 기본색으로 하는 오행(五行)을 상징하는 오방색을 사용하였다. 이를 오정색(五正色) 또는 오채(五彩)라고 부르는데 넓은 의미로 우주 생성의 근본이 되는 다섯 가지색이라 부른다. 이러한 오방색은 우리나라의 전통 색채로 생활 속에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요소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질서와 조화를 통해 나온 미(美)의 색채라고 부른다.

본인 작품에서 오방색상의 표현은 기하학적인 형태와 색(色)의 조화를 통한 우주적 공간의 질서와 조화를 천인합일(天人合一)의 우주관을 표현하는 것으로 하늘의 의지와 사람들의 삶의 관계를 질서와 조화로 설명하는 것이다. 또한 나를 존재하게 하는 의미의 우주, 나를 둘러싼 우주, 내안에 우주가 합일(合一)되는 세계를 조형적 작품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2. 작품의 형태적 표현

1) 원과 원추

원은 시작과 끝이 없으므로 영원과 전체성, 그리고 단일성의 의미를 지니며 가장 간결한 형태중의 하나이다. 원형이 지닌 운동감은 주위를 집중시킴으로 강한 지각의 대상이다. 원은구심력과 원심력이 긴장된 상태로 유지되는 균형 있는 형태로 움직임의 순환과 회전의 방향성을 가진 동적 형태이자 동시에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지 않는 정적인 형태이다.”⁹⁾

불교에서는 원을 세상의 우주의 진리를 상징화한 형태라고 본다. 또한 인생이 반복되고 반복된다는 의미에서 원을 쓰고 원시종교들에서도 신의 무한성, 세계의 계속됨 『비록 이 세계는 끝날지라도 새로운 세계가 계속 창조됨』 등을 상징할 때 원을 많이 쓰였다. 원이 일반적으로는 우주, 태양, 지구, 창조와 화합, 단결, 희망, 조화 등을 많은 뜻과 질서와 균형을 상징하고 있으며 본인 작품에서는 원은 우주를 상징하며 즉 질서를 의미하고 있다.

원형의 링 속에 링의 반복된 형태는 우주 속에 소우주를 질서속의 리듬을 나타낸다. 우주와 원을 연결시키는 것은 원은 작가의 지적, 감성적 마음 전체를 모든 측면에서 표현되는 기본 형태가 되었다.

원추는 측 단면으로 보면 삼각형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 옆면에서 보면 역삼각형이나 V자 형태와 유사한 원추는 신석기시대부터 여성을 상징하거나 또는 문이나 창을 나타내는 기호로 나타났다. 이것은 후에 집이나 땅을 나타내는 표현이었으며, 자신의 집을 수호하는 기호였다.¹⁰⁾

9)한석우, 위의 책, p.23

10) 아리엘 콜란, 정석배역, 『세계의 모든 문양』, 푸른솔, 2004 p.378

본인 작품에서 원추는 항상 중심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것은 곳 불변성의 핵심, 즉 진리의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이렇게 사각형이나 원으로 된 링(Ring)의 가운데 매달린 원추형은 자연적 법칙과 사회적 질서에 대한 인간의 정신적 구심점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원이 지닌 우주나 공간과 같은 전체를 유지하는 어떤 질서, 합리적 법칙, 절대성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2) 사각형

사각의 형태는 현대에 가장 많이 쓰이는 형태로 건물, 가구, 도구, 책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정서적으로 안정감과 편안한 느낌을 주는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이다. 또한 객관적으로 왜곡됨이 없이 전달과 소통이 가능한 가장 합리적인 형태로서 데이터화의 편리함도 장점을 들 수 있다. 즉 현대 문명 속에서 존재된 형태 없이도 다만 데이터만으로도 존재하는 것과 같은 인간 문명의 대표적 형태이다.

사각형을 살펴보면 윤곽을 형성하는 두선이 서로 같은 힘을 갖고 있으며 차가운 느낌이 상대적으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형태 중정사각의 정방형은 순수성과 합리성을 나타내는데 4개의 변과 4개의 직각이 같아 그 규칙성과 시각적인 명확함이 있기 때문이다.

사각형에는 방향성이 없지만 명확함과 안정성은 크기, 비례, 색, 배치와 방향을 변화시킬 때 다양성을 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의 사각형은 본인 작품에서 상징적 표현으로 가장 흔히 나타내는 형태인 정방형 사각형은 우주의 질서와, 서로 반대되는 것들의 균형을 나타내고자 한다.

플라톤(Platon)은 일찍이 ‘정신’을 구(球)형에 비유하여 설명하였으며, 이

에 반대 개념으로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은 세속적인 것, 즉 육체와 현실세계의 상징으로 여겨 왔다. 이러한 현실세계의 사각형은 둥근 것과 모난 것, 화해와 대립, 조화와 갈등 등의 대립적 의미들을 연상시킨다.

사각형의 형태는 두개 이상의 요소 사이에서 부분과 부분, 또는 전체 사이에서 시각적으로 힘의 무게 중심이 안정되게 느껴질 경우 균형을 이루게 되어 보는 사람에게 안정감과 명쾌한 감정을 느끼게 하며 균형은 움직임 속에 안정감과 조화를 느끼게 해준다.

본인의 작품에서 사각형의 형태적 의미는 단단함을 나타내며 정지해 있고 현실적이며 물질의 완벽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것은 신뢰성, 정직함, 안전의 뜻을 내포하고 있으며 원과는 대칭되는 형태로써 관습, 법, 규범, 인습 등을 생활이나 사회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어떤 질서를 뜻하며 균형 잡힌 사회문화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3) 오방색과 빛

서양 뿐 아니라 동양에서도 색들은 신비와 주술의 효과로 이용되었는데, 색채는 특히 인간의 감성과 깊은 연관이 있다.

우리의 색에 대한 전통과 역사를 살펴보면, 그 하나는 음양오행에 영향을 받은 ‘오방색’이 있고 또 하나는 순수성과 간결성을 담은 ‘백색에 대한 선호’가 있다. 이러한 오방색은 한국 문화의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인 자연과의 조화를 의미하고, 오방색은 자연과 우주의 원리에 순응하는 음양오행을 바탕으로 일어진 것이다.¹¹⁾ "음양오행설을 따라 적(赤)은 남(南), 청(靑)은 동(東), 황

11) IRI 색채 연구소, 『Color Combination,』 영진닷컴, 2003. p.15

(黃)은 중앙(中), 백(白)은 서(西), 흑(黑)은 북(北)을 방향과 다섯 가지 원색으로 삼라만상을 분류한다. 그래서 이색을 ‘오정색’이라고 부르기도 한다.”¹²⁾

이 색들은 남성적이며 상승적인 밝은 기운인 양(陽)의 기운을 가진다고 여겼으며, 동, 서, 남, 북 중앙의 다섯 방위에 각각 짝을 지어 놓았다. 뿐만 아니라 여성적이며 어둔 음(陰)의 기운에 해당하는 색이 존재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을 동, 서, 남, 북, 중앙 사이에 놓이는 색들로 ‘오간색(五間色)’이라고 하고, 녹색, 벽색, 홍색, 유향색, 자색이라고 불렀다.

“음양오행이란 우주 만물은 음양오행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요소들이 서로 균형 있는 통합을 이루고 있어야 세상의 질서가 유지 된다”¹³⁾는 동양적 조화론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조상들은 삶 속에서 건축의 단청이나 복식과 장신구 등에 오방색이 많이 나타나며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해 왔다.

본인은 우리의 전통 색으로 인식되는 이러한 색을 작품에 활용하였는데 형태표현에서 우주의 상징성을 표현된 원의 형태와 오방색상은 일맥상통(一脈相通)함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조화를 말하고자 함이다.

사용된 색상 외에 나타낸 색상과 빛은 작품에 사용된 재료 자체가 갖고 있는 고유의 색상과 빛으로 표현되었다.

금속성인 스테인레스 스틸은 은색 빛을 동(銅)은 금색 빛을 띤다. 이 재료들의 공통된 특성은 매끄러운 표면을 통해 물체를 반사 한다. 반사 광체를 지닌 잔상과 반사의 효과를 가진 물질은 현대적인 느낌이나 특성을 잘 전달 할 수 있는 재료이므로 작품의 신비성과 강인한 조형적 느낌을 준다. 또한 검은 색

12) IRI 색채 연구소, 위의 책, p.45

13) 이종우, 『흐름으로 읽는 동양철학』, 보고사, 2003

(色)을 띠는 오석(烏石)을 사용하였는데 흑색사암으로 입자가 작고 연마하면 검은 빛을 띠는 돌(石)로 오방색중 북쪽을 상징하는 색이라는 점과 돌에서 느껴지는 중후한 무게감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서 작품하부의 무게 중심으로서 사용하였다.

3. 작품분석



【도판1】 조화(I) - harmony(I), 2007

[작 품1] , 【도 판1】

▶ 명 제 : 조화(I) - *harmony*(I)

▶ 재 료 : 스테인레스 스틸, 황동, 오석, 페인트도색, 조명설치

▶ 크 기 : 300× 300× 2,250(H)mm - 5개

▶ 제작년도 : 2007년

▶ 제작방법

- 형태와 문양을 스케치 후 도면작업을 거쳐 스테인레스 스틸판과 파이프를 컴퓨터 레이저를 이용하여 모형절단하고 용접으로 조립한다.
- 링과 원기둥인 파이프 표면을 수작업으로 연마하여 광택처리 한다.
- 스테인레스 스틸 원추는 환봉을 선반기계로 원추모양을 가공하여 제작한다.
- 표면이 광택으로 처리된 링과 링을 볼트와 너트로 연결 조립하여 안쪽 링과 그 링 안쪽 중심에 원추 끝부분에는 빨강 파랑 노랑 녹색 황색을 도색하여 스틸 와이어로 매달아 인위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였다.
- 상단부분이 도안되어 투각된 스테인레스 스틸 원통형 파이프 내부에 빨강, 파랑, 노랑, 녹색, 흰색을 도색하였으며 그 내부 하단에 각각 색의 조명을 설치하였다.
- 하단에 안정감 있게 오석원형받침으로 중앙에 구멍을 뚫어 볼트와 너트 조임으로 연결한다.

▶ 작품내용

본 작품은 링과 링으로 연결 내부 중앙에 원추가 매달려 있고, 그 밑에 투각되어 내부에 도색된 파이프와 내부하단에 설치된 조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제작된 작품은 각각 크기가 다른 5개가 조화롭게 군(群)을 이루고 있으며 금속재료에서 느낄 수 있는 현대적인 질감의 특성을 느낄 수 있다.

원이 갖는 의미는 순환, 우주, 공간을 나타내고 있으며, 원형의 링 속에 링의 반복된 형태는 대우주 속에 있는 소우주들, 질서속의 리듬이나 순환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원형 링 중심에 설치된 원추는 긴장과 균형과 중심을 상징하며 가장 현대적인 느낌의 광택 처리된 원형 파이프 기둥은 일직선이 갖고 있는 긴장성을 이용함이다. 그곳에 투조된 형태는 현대 사회의 안과 밖의 조화를 의미하며 투조된 문양의 내부에 도색된 빨강, 황색, 청색, 검정색, 백색은 음양오행을 나타내는 색으로 우주, 즉 자연의 조화를 의미한다.

원형 파이프 작품내부에 각각 설치된 적색, 황색, 녹색, 백색, 청색의 조명 색상의 빛은 마치 관람자로 하여금 꿈틀거리는 것 같은 울동감과 생명감을 표현 하였으며, 질서 속에 조화를 이루고 있는 우주(Cosmos)를 표현한 것이다.



【도판2】 조화(Ⅱ) - harmony(Ⅱ), 2007

[작 품2] , 【도 판2】

▶ 명 제 : 조화(Ⅱ) - *harmony*(Ⅱ)

▶ 재 료 : 동, 스테인레스 스틸, 오석, 페인트도색, 오색유리

▶ 크 기 : 300× 300× 2,200(H)mm - 5개

▶ 제작년도 : 2007년

▶ 제작방법

- 동판을 모형 절단하여 용접제작한 링을 광택표면 처리하여 링과 링을 볼트와 너트로 연결 조립하고 안쪽 링과 그 링 안쪽 중심에 추 끝부분에는 오방색을 도색하여 와이어 매달아 인위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였다.
- 스테인레스 스틸을 레이저 절단하여 아르곤용접으로 제작한 직육면체에 사면 표면에 정사각형의 도형을 선각하고 투각하여 투각한 안쪽 면을 판으로 용접하여 막고 그 면에 빨강, 노랑, 파랑, 녹색, 검정, 흰색을 도색하였다.
- 선각한 표면에 오색유리를 에폭시와 실리콘으로 부착함.
- 하단에는 검은 오석 사각기둥을 연결하였으며 그 밑에 오석좌대 받침대에 중앙에 구멍을 뚫어 스테인리스강 환봉으로 석재용 접착제와 함께 상부와 연결함.

▶ 작품내용

본 작품은 5개가 군(群)으로 이루어진 작품으로 외적으로는 재료에서 주는 동(銅), 스테인레스 스틸과 오석이 주는 다양한 재료미와 화려한 색상의 조화를 느낄 수 있으며 군(群)이 지닌 조형공간의 구성미를 느낄 수 있다.

이 작품의 내용은 여러 개의 링이 직선으로 연결된 형태인데 질서를 표현

한 것이며, 그 내부에 설치된 원추는 우주 속에서 인간이 균형과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진리를 상징하고 있다. 그 하단에 연결된 직육면체는 관습, 법, 규범, 인습 등을 나타낸다.

직육면체 형태의 측면에 부착된 빨강, 청색, 황색, 백색, 검정색상의 색유리와 사각으로 투각된 면에 도색된 색상은 것은 안과 밖의 조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 밑에 연결된 오석 사각기둥은 직선의 긴장감과 절제미를 느끼게 해주며 검정색의 색상은 전체적인 안정감을 준다. 이러한 색의 조화를 통하여 우주적 공간의 질서와 조화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도판3】 조화(Ⅲ) - harmony(Ⅲ), 2007

[작 품3] , 【도 판3】

▶ 명 제 : 조화(Ⅲ) - *harmony*(Ⅲ)

▶ 재 료 : 동, 스테인레스 스틸, 오석, 조명설치

▶ 크 기 : 700× 400× 1,850(H)mm

▶ 제작년도 : 2007년

▶ 제작방법 :

- 스테인레스 스틸 판을 컴퓨터 레이저 모형 절단하여 용접제작한 링과 원형을 광택과 무광 처리하여 용접으로 연결하고 별자리를 레이저로 투각하였으며 내부 공간에 조명을 설치함.
- 상부외곽에 스테인레스 스틸 사각환봉을 원으로 기계로 벤딩한 2개를 조립하여 설치함.
- 그 밑 원형기둥은 외형 원형 파이프를 4등분하여 절단하여 안쪽에 역시 4등분한 작은 파이프를 연결 조립하였고 그 내부중심에 원추를 매달았다. 그리고 하단에서 조명을 설치하였음.
- 하단은 둥근 오석 작품좌대에 구멍을 뚫어 스테인레스 스틸 환봉으로 상부와 연결, 석재용 접착제와 함께 연결함.

▶ 작품내용

원과 원으로 이루어진 형태는 우주 속에 우주를 표현한 것이며, 투각된 천문도인 4개의 별자리는 사계절을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자연 즉 우주 섭리와 질서를 나타낸다.

또한 별자리가 투각된 원형 내부에 설치된 빨강, 파랑, 노랑, 녹색, 조명의

빛은 밤하늘의 별자리를 연상케 하였으며, 하늘에 대한 인간의 맑고 깨끗한 동심이나 순수를 기억하고자 하였다.

원형 구조물과 연결되어 받치고 있는 하단의 파이프 내부 중앙에 매달린 원추와 내부에서 발산하는 조명 빛은 우주와 인간의 관계있어 대우주와 소우주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내재된 세계의 은밀히 엿보고자하는 인간의 심리를 표현 하였다.

본 작품은 혼돈과 무질서한 현대 문명과는 달리 자연과 우주의 섭리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도 한 바탕위에서 질서와 조화(harmony)를 통해 순환되고 있음을 설명하고자 한 것이다.



【도판4】 명 상(I) - Meditation(I), 2007

[작 품4] , 【도 판4】

▶ 명 제 : 명 상(I) - *Meditation*(I)

▶ 재 료 : 동, 스테인레스 스틸, 오석,

▶ 크 기 : 1,160× 250× 2,540(H)mm

▶ 제작년도 : 2007년

▶ 제작방법

- 스테인레스 스틸 판을 모형 절단하여 용접제작한 링을 표면은 광택 처리하여 링과 링을 볼트와 너트로 연결 조립하고 안쪽 링과 그 링 안쪽 중심에 원추 끝부분에는 오방색을 도색 후 와이어로 매달아 인위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였다.
- 외곽에 황동 사각환봉으로 직사각으로 십자가 형태의 구조물을 만들고 하단에 스테인레스 스틸 판을 용접하여 만든 사각기둥과 연결하여 표면을 광택처리 하였다.

▶ 작품내용

본 작품은 십자가를 형상화하여 정신세계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것은 십자가가 상징하는 이상과 꿈, 희생과 사랑이 내 안의 정신적 우주 공간 속에서 중심되어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십자 형태를 이루고 있는 원들의 외곽을 직선으로 다시 완벽한 십자가가 그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이것은 십자가가 의미하는 상징적 세계를 작품 안에 끌어 들리고자 함이다.

형태적인 느낌은 외적으로 정적이면서 간결하게 보이는 직선은 절제와 긴장

을 느낄 수 있으며 십자가 형태의 안의 원과 그 원의 내부공간에 매달린 원추는 고요함 속에 명상에 잠긴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작품에서 나타난 형태의 작품내부에 이루고 있는 조형공간은 상징적으로 내 자신에 내재된 심리를 스스로 투영시킴을 표현한 것이며 거기에서 깊이 있는 여운과 암시적인 의미로 사유(思惟)의 정신세계를 나타낸 것이다.



【도판5】 명 상(Ⅱ) - Meditation(Ⅱ), 2007

[작 품5] , 【도 판5】

▶ 명 제 : 명상(Ⅱ) - *Meditation(Ⅱ)*

▶ 재 료 : 동, 스테인레스 스틸, 오석,

▶ 크 기 : 625× 600× 1,725(H)mm

▶ 제작년도 : 2007년

▶ 제작방법

- 황동 판을 모형 절단하여 용접제작한 링을 표면을 광택 처리한 링과 스테인레스 스틸로 제작한 구(球)를 연결 조립하고 링 안쪽 중심에 원추 끝부분에는 색상을 도색한 원추를 와이어로 매달아 인위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였다.
- 중심에는 스테인레스 스틸로 제작한 정면이 뚫린 사각의 내부중양에 원추를 매달아 중양에 배치하고 한 개의 구(球)는 열을 가해 청색 색상으로 변화시켜 다른 구와 너트로 연결함.
- 6개의 구와 사각, 원을 조립한 외곽에 스테인레스강 사각환봉으로 정사각형 형태의 구조물을 제작하고 그 밑에 사각환봉 4개를 연결하여 기둥을 세우고 그 내부 중심에 원추를 설치함.
- 하단을 오석으로 받침을 하고 정중양을 중심으로 십자 선을 음각하여 원추 끝과 일치하도록 설치함.
- 오석받침에 구멍을 뚫어 스테인레스강 환봉으로 상부와 연결 석재용 접착제로 부착시킴.

▶ 작품내용

여러 개의 구의 형상들은 다양한 우주의 공간과 그 공간의 행성들을 상징하며 여기서 한 개의 구에서 발산하는 청색 빛은 생명을 상징하는데 정적인 힘을 공간전체로 확산시키는 생명의 동적인 기운임 표현하고 있다.

구(球)들 사이의 중앙에 배치된 사각형은 질서와 조화의 원리로서 균형을 표현한 것이다.

위를 받치고 있는 4개의 사각형 기둥 내부 중앙에 매달린 원추는 하단의 받침대인 오석에 음각으로 새긴 중앙 십자선 중심에 바르게 일치하고 있는데 이는 흐트러짐이 없는 균형과 긴장감, 즉 하늘과 나와 땅 즉 天, 地, 人이 일치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도판6】 명상(Ⅲ) - Meditation(Ⅲ), 2007

[작 품6] , 【도 판6】

▶ 명 제 : 명상(Ⅲ) - *Meditation(Ⅲ)*

▶ 재 료 : 동, 스테인레스 스틸, 오석, 조명설치

▶ 크 기 : 300× 300× 2,250(H)mm

▶ 제작년도 : 2007년

▶ 제작방법 :

- 스테인레스 스틸 판을 모형 절단하여 용접제작한 링을 광택표면 처리하여 링과 링을 볼트와 너트로 연결 조립하고 안쪽 링과 그 링 안쪽 중심부분에는 황동 원추를 와이어로 매달아 인위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였음.

- 그 밑에게 스테인레스 스틸 용접하여 만든 정사각형의 직육면체를 연결하고 표면을 광택처리 하였다. 그리고 사면에 가로 세로를 그라인더 절단 날로 선각을 하고 중앙의 사각형을 뚫고 하단 칸에는 계단을 부착시키고 그 내부 중앙에 청색 조명을 설치함.

▶ 작품내용

링(Ring) 안에 링이 서로 연결된 형태는 우주와 나와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며 또한 질서와 조화를 나타낸 것이다. 원 중심에 매단 원추와 그 밑의 직육면체는 자신에게 내재된 도덕적 범칙성을 느끼고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하는 존재를 상징한다. 직육면체 중앙에 사각으로 투과된 내부 공간에서 청색조명 빛은 오방색(五方色)중 동쪽 방향을 상징하는데 이는 만물의 생성(生成)즉 '봄'을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 작품에서 공간은 신성하고 성스러운 공간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Ⅲ. 결 론

원과 원추, 사각형 그리고 색을 통한 본인의 기하학적 조형 작품들은 다양하면서도 단일한 전체를 이루고 있는 자연과 우주, 인간의 대우주적 관계인 질서와 조화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러한 질서와 조화는 다시 사물과 인간, 사회적 관습과 규범 사이를 이루어내는 소우주적 인간 사회의 관계와 동일한 것임을 나타낸다.

본인의 작품에서 원과 구의 형태는 자연적 법칙의 완벽함과 만물의 순환을 유지하는 질서와 조화의 의미를 담고 있다. 사각형은 사회적 질서나 규범이 이루어내는 균형을 뜻하며, 원추형의 추는 자연적 법칙이나, 혹은 사회적 질서에 대한 인간의 정신적 중심을 나타낸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인의 조형작업은 사각형과 원, 원추의 기하학적 형태의 결합과 구성을 시도하였으며, 아울러 색을 통해 이러한 질서와 조화가 곧 미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색에 있어서 주안점은 한국의 전통색인 오방색을 통해 상징성적 의미와 환경과 공간에서의 색의 조화에 대한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 고자 하였다.

현대의 사회와 문화는 다양성을 내세우며 개체와 개성을 중요시한다. 이 때문에 우리는 대우주를 이루는 자연법칙이나 인간관계에서 균형과 중심을 잃고 행동하기도 하며, 사회적 규범과 의무와 같은 것들을 무심코 지나치기도 한다. 그러나 오늘날 인간을 둘러싼 환경은 어떤 거대한 질서와 법칙에 의하여 이루어져 있다. 그것이 본인의 조형 소재로서 기하학이라는 형태를 사용한 이유이다.

근거 없는 유기적인 형태들이 주는 자유로움의 정서이면에 존재하는 공허함의 정체는 바로 이 세계의 질서와 조화에서 비롯된 것임을 통찰하고, 동시에 절제와 균형 속에서 이루어지는 확고한 존재의 조형을 이루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질서와 조화의 개념은 본인의 조형작업 활동에서의 기본이 되어 앞으로도 좀 더 깊이 있는 자세로 연구하며 생활의 기본정신으로 삼고 작업에 임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 Jame & Jones, Geometry, Mathematics, Dictionary, 1986
- 동아원색세계대백과사전, 제 6권, 1982년,
- 김춘일, 박남희, 『조형의 원리와 분석』, 서울 미진사 1991.
- 한석우, 『입체조형의 형태와 공간』, 미진사 1987
- 진쿠퍼, 『그림으로 보는 세계문화 상징 사전』, 이윤기 옮김, 1997
- 김이순, 『현대조각의 새로운 지형』, 해안, 2005.
- 하용득, 『한국의 전통색과 색채심리』, 서울 명지대 출판부 1999
- I.R.I 색채 연구소, 『Color Combination,』 영진팝, 2003.
- 미셸 세르, 「기하학의 기원」 1993.
- 이종우, 『흐름으로 읽는 동양철학』, 보고사, 2003
- 국립민속 박물관, 「천문 하늘의 이치 땅의 이상 도록집」, 2004년
- 이 일, 『조형 형태론』, 홍익대학교 출판부, 1971.
- 루돌프 아르하임, 김춘일, 『미술과 시지각』, 홍성신서, 2002년
- 전수진, 「베르그송의 형이상학의 미학적 의의, ‘직관’과 ‘지속’, ‘정서’의 개념을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998.
- 이윤기 역 칼구스타프 융, 『인간과 상징』 열린책들, 1990

ABSTRACT

A Study on Formativeness of Geometrical form

- In focus of my works -

Kim, Nam Woon

Major in Sculpture

Dep. of Plastic Arts

Graduate School of Art · Design

Sung-Shin Women's University

Geometric form in modern society is very important formative elements such as an architecture, a painting, a sculpture and a design, etc, in art area. Geometry is a figure which can divided into a plane and a solid and is made by when mathematical proportion formed visually.

Such kind form was based on mathematical theorem is which becoming of expression of order and harmony from the making of a unity and variation in formativeness.

My art works used mostly circle, square, a cone and color in geometry form. A circle is as an order of cosmos, a cone combined between a

column and triangle is center of self-control human has, core and symbol of eternal truth. A square is expressed safety balance from opposite of all things. Moreover, In plastic element colors is expression of the harmony of yin-yang, symbol of blue, red, yellow, black, white in the sum of things as the universe view.

This study is geometric form of universe and order by the existence of self-being and form and color symbol make use of geometric expression of harmony and order.

The main discourse is made up of three chapters.

Chapter I, It is presenting to background of geometry concept and harmony and order with direction of formative art work.

Chapter II, It's presenting to production method and production detail of my art work of six related with formative meaning, material expression of circle, corn, square and colors.

Chapter III, as conclusion, I would like to present to the direction of my work and would like to re-positioning theoretically for my art work through in this research.